

‘두 쪽 난 광복절 경축식’... 국회의장·야당 불참

정부·독립운동단체 행사 ‘따로’
1965년 광복회 창설 이래 최초
우원식 의장 “헌법정신에 반해”
광복회장 “친일사관 뿌리 뽑아야”

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
‘뉴라이트’ 논란으로 광복절 기념식이 돌
로 쪼개져 치러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
벌어졌다.

15일 제79주년 8·15 광복절 기념행사가
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 기
념식으로 각각 나뉘어 열렸다.

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
극장에서 열린 정부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
령과 정부 부처,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
참석했다.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광복
회장,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정
부의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했다.

같은 시간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
복회 등 56개 독립운동단체연합은 서울
용산구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자체 광
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.

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
단체 기념식이 따로 열린 것은 1965년 광



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,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 등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.

복회가 창설된 이래 첫 사례다.

우원식 국회의장은 “유감스럽지만 국민
께서 염려하고 광복회가 불참하는 광복절
경축식은 인정할 수 없다”며 정부 공식 경
축식에 참석하지 않았다.

우 의장은 “입법부 수장으로 헌법정신
수호와 여야 간 중재, 독립운동가 후손으
로서 역사적 책무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

다”며 “민의를 전담인 국회의 대표로서 국
민 대다수의 뜻, 나아가 헌법 정신에 반하
며 독립운동을 왜곡하고 역사를 폄훼하는
광복절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”고
밝혔다.

입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서열 2위인
국회의장이 경축식에 불참한 것은 전례를
찾아보기 어렵다. 박병석 전 의장이 2021

년 해외 순방과 겹쳐 부득이하게 불참한
것을 제외하고는 처음이다.

김형석 관장 임명에 반발해 광복회 등
독립운동단체를 비롯해 민주당과 조국혁
신당, 진보당, 새로운미래, 사회민주당,
기본소득당 등 야 6당도 불참했다.

이날 독립운동단체연합의 별도 광복절
기념식에는 광복회원 등 450여명이 자리
했다. 당초 350명을 초대했으나 정치인과
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오면서 참석자가 늘
었다.

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
부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, 용혜인 기본
소득당 대표 등도 앞 줄에 앉아 기념식을
지켜봤다.

앞서 광복회는 “경축식 불참 이유가 훼손
될 것을 우려해 정당·정치권 인사는 초
청하지 않겠다”고 밝혔으나, 현장 참석을
막지는 않았다.

이종찬 광복회장은 기념사에서 “최근
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사관에 물든 저
열한 역사 인식이 판치며 우리 사회를 혼
란에 빠트리고 있다”며 “독립운동가 후손
이 모여 독립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광
복회는 역사적 퇴행과 훼손을 보고만 있

을 수 없었다”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.

이 회장은 “이것은 분열의 시작이 아니
라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광복의 의
미를 기리는 진정한 통합의 이정표를 세
우기 위함”이라고 강조했다.

이 회장은 “피로 쓰인 역사를 허로 논하
는 역사로 덮을 수는 없다”며 “망령처럼
살아나는 친일사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.
독립운동을 폄훼하고 건국절을 들먹이는
이들이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이 회장의 기념사 이후 김갑년 광복회
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의 축사와 한시준
전 독립기념관장의 ‘1948년 건국절은 식
민지배 합법화’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. 참
석자들은 축사 중간 ‘윤석열 탄핵’, ‘대한
독립 만세’ 등을 외치기도 했다.

야당 중 유일하게 정부 주관 광복절 경
축식에 참석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
“원칙을 지키는 차원”이라고 밝혔지만, 천
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, 이
준석 의원 등은 불참했다. 이준석 의원은
소셜미디어(SNS)에 “정부·야당 기초가
정상이 아니다”고 불참 사유를 밝혔다.

▶관련기사 4·5·6면

서울=김선욱 기자 seonwook.kim@jnilbo.com

‘야구 천재’ 김도영, 최연소·최소 경기 30홈런-30도루

키움 히어로즈 상대 투런홈런
20세 10개월 13일·111경기만에

‘야구 천재’ KIA타이거즈 김도영이
KBO 리그 역대 최연소·최소 경기 30홈
런-30도루 기록을 동시에 갈아치웠다.
20세 10개월 13일의 나이로 올 시즌 111
경기(팀 113경기) 만에 이뤄낸 쾌거다.

김도영은 15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
열린 키움히어로즈와 2024 신한 SOL뱅크
KBO 리그 시즌 11차전 3-1로 앞선 5
회초 1사 1루에서 엔마누엘 데 헤이스스
의 초구 148km 직구를 때려 중앙 담장을

넘어가는 비거리 130m의 대형 홈런으로
연결했다.

이 홈런으로 김도영은 KBO 리그 통산
일곱 명, 야후 번째 30홈런-30도루의 주
인공이 됐다. 지난 3일 대전 한화전에서
홈런을 터트리며 29홈런 고지를 밟은 지
12일 만이다.

KBO 리그 역사상 30홈런-30도루는
여덟 차례밖에 나오지 않았다. 김도영은
1996년 박재홍(현대)을 시작으로 1997
년 이종범(해태), 1998년 박재홍(현대),
1999년 홍현우(해태)와 이병규(LG), 제
이 데이비스(한화), 2000년 박재홍(현

대), 2015년 에릭 테임즈(NC)의 뒤를 이
었다. 타이거즈로 범위를 좁히면 25년 만
에 세 번째다.

특히 김도영은 KBO 리그 사상 최연소
와 최소 경기 30홈런-30도루를 동시에 경
신했다. 김도영은 20세 10개월 13일의 나
이로 30홈런-30도루를 달성하면서 박재
홍의 22세 11개월 27일을 넘어섰다.

또 올 시즌 개인으로는 111경기, 팀으
로는 113경기 만에 30홈런-30도루를 달
성하면서 테임즈의 개인 112경기, 팀
114경기 기록에 단 한 경기를 남겨두고
새로운 기록을 쓰게 됐다. **한규빈 기자**



KIA타이거즈 김도영이 15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히어로즈와의 경기 5회초 1사 1루에서 중월 투런 홈런을 치고 있다. **뉴스**

제5기 전남일보 소울푸드 아카데미 회원을 모집합니다

모집인원 000명
아카데미 Leadership (포럼 7회)
일정 Friendship (체육 행사 2회)
Patronship (전시 관람 1회)
교육기간 2024.09-2025.05
수강료 330만원(부가세 포함)
문의 전남일보 사업본부
(062)519-0730

세부 일정표 만찬 후 강연 (18시 식사, 19시 강연)

일자 및 회차	강사	분야
2024. 09. 26(목) - 포럼 1강	이광재 제35대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	정치
2024. 11. 28(목) - 광주비엔날레 관람 및 만찬		
2024. 12. 12(목) - 포럼 2강	최철 조선대 교수·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	예술
2025. 01. 09(목) - 포럼 3강	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	경제
2025. 02. 06(목) - 포럼 4강	한재권 한양대학교 교수	로봇 공학
2025. 04. 03(목) - 포럼 5강	이경전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교수	정보(AI)
2025. 05. 08(목) - 포럼 6강	한근태 한스컨설팅 대표, 서울과학기술대 교수	인문
2025. 05. 29(목) - 포럼 7강	박준영 재성 전문 변호사	사회